



군산남초, 전국유소년 야구대회 '우승'

군산남초등학교 야구부가 전국대회 우승을 차지했다. 이에 따르면 군산남초는 지난 9일 보은군 스포츠파크에서 열린 '2024년 제2회 결초보은 전국유소년야구대회' 결승에서 과주 BC팀을 13-2로 이기고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지난해 무안 황도골배 전국유소년야구대회 준우승, 고창 선운사배 전국유소년야구대회에 3위라는 성적을 거둔 군산남초는 올해 전국규모 대회에서 첫 번째 우승을 거두는 쾌거를 이뤘다. 김수동 교장은 "최정중 감독은 군산남초에 부임한지 1년 반밖에 되지 않았지만 바른 인성을 토대로 학생 선수들이 성장하는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다"고 소감을 밝혔다. 최정중 감독은 "군산남초 야구부는 역사적으로 저력이 있는 팀이고, 학교와 학생, 학부모 모두가 협력하는 분위기가 조성돼 있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전북자치도 공무원, 양파수확 일손돕기 실시

전북자치도가 농번기 부족한 일손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농가를 방문해 일손을 보탰다.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축산식품국은 13일 오전, 임실군 청운면 소재 양파 농가를 방문해 양파 수확 일손돕기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일손돕기에는 농생명 축산식품국 직원 40여 명이 참여해 약 3시간 동안 양파 수확 작업에 힘을 보탰고, 참가자들은 뜨거운 햇살 아래에서도 헌마음으로 양파를 수확하며 농업인들의 고충을 몸소 체험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김신중 농산유통과장은 "농번기 일손 부족 문제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농업인의 입장에서 고충을 덜어주기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계속해서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양파 농가주는 "바쁜 농번기에 일손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도와줘서 큰 힘이 됐다"라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만호 기자



농협 남원시지부, 남원 농협발전 상생협의회

농협 남원시지부(지부장 오영석)는 지난 12일, 회의실에서 법농협 계통 조직간 소통과 상생을 위한 '2024년 남원시 농협발전 상생협의회'를 개최했다. 상생협의회는 농협 남원시지부(지부장 오영석), 농신보남 원권역보증센터(센터장 이성로), 관내 농·축협 임직원을 포함해 14명으로 구성, 계통 조직간 소통문화 확산을 통한 농업·농촌 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행사에서는 각 계통 사업별 정보공유 및 상생·발전을 위한 지역 현안에 대한 협회의 역할 등 실천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오영석 지부장은 "상생협의회 운영을 통해 법농협 계통 직원 간 상호이해증진 및 협력적 조직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박호진 효드림 병원장, 고향사랑 300만원 기탁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효드림병원(병원장 박호진)이 13일 고향사랑기부금 3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효드림병원은 보건복지부 인증 의료기관으로 중풍, 치매, 노인질환 등 수준 높은 전문 의료 서비스를 통해 김제지역 어르신들의 건강한 삶 회복을 도모며 든든한 울타리 역할을 하고 있다. 이날 기탁식에서 박호진 병원장은 "김제를 위해 고향사랑 기부제에 동참할 수 있어 매우 기쁘다"며 "김제의 발전의 소중한 디딤돌로 쓰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김제를 사랑하는 마음을 고향사랑기부제로 표현해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보내주시는 마음은 김제가 웅비할 수 있는 소중한 자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고 전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전북자치도 제1호 예비사회적기업 탄생

4개사 지정서 전달식... 지정기업 공공구매 우선구매·경영 컨설팅 등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첫 예비사회적기업이 탄생했다. 전북자치도가 특별자치도 출범한 원년을 맞아 제1호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하고 13일 도청 세미나실에서 지정서 전달식을 개최했다. 전북자치도는 4월 공모 접수 후 신청기업 11개사에 대해 시군 및 고용관서와 현장실사 및 대면심사를 실시하고 지난 6월 4일 최종 4개 기업을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예비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 일자리제공뿐만 아니라 문화·복지 인프라 부족, 지역 소멸 등 전북이 당면한 지역사회 문제 해결 노력에 중점을 두고 평가되었다. 선정기업은 4개사로, 군산시 소재 ㈜아이리신, 남원시 소재 협동조합비너스, 김제시 소재 김제문



화예술 협동조합, 완주군 소재 ㈜자정이다. 도는 지정된 기업에 대해 3년간 도 공공기관 우선구매, 금융 및 판로 지원, 경영 컨설팅을 통해 스스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도내 사회적기업은 금번 지정기업을 포함 예비기업이 84개, 인증기업이 212개, 총 296개사로 전국 5위 규모이다. 신미애 전북자치도 금융사회적경제과장은 "정부 지원 예산이 축소된 상황에서도 사회적기업 진입을 위해 오랫동안 준비해 오신 기업 관계자들의 열정과 노력에 감사드립니다"며, "도는 예비사회적기업이 자생력을 갖춰 인증 사회적기업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남원시, 자율형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간담회

남원시는 13일, 시청 2층 회의실에서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대표자 및 관리책임자 등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제공기관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지원단 정주에 팀장을 초청,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정책 동향, 남원시 추진 방향 공유 및 부정수급 예방 등에 대한 설명과,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효율적인 운영 방안 논의 및 제공기관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 사업은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다양한 복지 욕구를 가진 이용자에게 지역 여건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노인문화여가 토탈서비스 등 12개 서비스를 18개 제공기관을 통해 제공하고, 가사간병 및 일상돌봄 서비스 제공을 통해 돌봄이 필요한 대상에게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허인선 주민복지과장은 "앞으로도 남원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사회서비스 개발과 추진을 통해 시민들이 복지 욕구를 해소하고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주 시민축구단, 오는 15일 전북 B팀과 원정 경기 나서

전주 시민축구단(이하 전주)이 K4리그 1위를 노린다. 전주는 오는 15일 전북현대 클럽하우스 C구장에서 전북현대 모터스 B팀과 '2024 K4리그' 원정경기를 갖는다고 밝혔다. 현재 승점 22점(6승 4무 1패)으로 2위를 달리고 있는 전주는 이날 승리로 리그 1위로 올라서겠다는 각오다. 특히 전주는 홈 5연승으로 최다연승을 달리며 가파른 상승세다. 전주는 이날 전북 B팀을 상대로 승리해 K4리그 1위와 더불어, 10경기 연속 무패에 도전한다. 이번 원정에서 전주는 전북을 상대로 다양한 전술과 공격 축구로 많은 골을 넣어 승리를 거두고 재미있는 축구를 선보이겠다는 계획이다. 공격에서는 오태환과 김도형이 상대 골문을 향해 막강 화력을, 중원에서는 이학선, 신원호, 김현, 서명식이 왕성한 움직임을 보일 전망이다. 또 수비에서는 여재욱과 김창수, 장순혁, 이강원이 상대의



공격을 원천 차단, 골문은 김재환이 클린시트에 도전한다. 양영철 전주 시민축구단 감독은 "선수단 분위기가 아주 좋다. 모든 경기에서 선수들이 열심히 해주고 있다"면서 "이번 경기에서도 공격 축구로 재미있는 경기를 펼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경기는 무관중으로 열린다. /장은성 기자



남원소방서 의용소방대 연합회 등, 영호남 자매결연

남원소방서(서장 양순주)는 13일, 남원 교통산 국민관광지에서 남원소방대 연합회(회장 공은태, 박정화)와 사천의용소방대 연합회(회장 김영구, 강미애)가 영·호남 자매결연 교류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행에는 양 기관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호남 지역 간의 동서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의용소방대 운영 수범사례 공유와 긴밀한 유대관계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1999년 8월 남원의용소방대와 사천의용소방대가 협약식을 체결한 이후 2022년까지 매년 실시, 2023년부터는 양 지역 연합회로 확대 진행되고 있다. 이번 행사에서는 관원투원 탐방, 민인의총 헌화 및 참배 후 교통산 국민관광지에서 남원소방서장과 연합회장의 환영사 및 답사, 의용소방대 활동 사례 공유 순으로 진행했으며, 상호교류의 의미를 다짐과 동시에 각 지역의 발전을 기원하며 각 100만원씩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했다. 공은태 남원 연합회장은 "이번 교류 행사가 영·호남 의용소방대 화합의 장을 넓히고 의용소방대 업무를 교류할 수 있는 만남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김제농협, 종합업적평가 전국 농·축협 경영부분 우수조합장상 수상

김제농협(조합장 이정웅)은 최근 전북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6월 정례회에서 2023년 종합업적평가에서 우수조합장상을 수상했다고 13일 밝혔다. 종합업적평가는 농협중앙회가 전국 1,111개 농·축협을 대상으로 신용사업·경제사업·교육지원사업 등 모든 사업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시상하는 최고 권위의 상이다. 특히 김제농협은 대·내외 축적된 리스크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 목표손익을 달성하며 농업인 실적증진과 복지증진



현을 선도하는 지역 농협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남원 왕정동 복지공동체, 독거노인 주택 보수

남원시 왕정동 복지공동체는 재능기부 지원팀과 지난 10일부터 3일간 위기 상황에 있는 독거노인의 주택 보수를 실시하였다. 해당 가구는 생활쓰레기와 함께 음식물을 치우지 못해 악취가 심하고 위생상태가 열악하였으며, 주택 붕괴위험이 있어 안전에도 위험이 있는 긴급한 상황으로, 동 복지공동체와 수호천사봉사단이 폐기물 및 쓰레기 수거 등 청소 및 사업체(유)성심이앤지, OA시스템, (유)다승, (유)누리이엔지)의 재능기부로 전기시설 보수, 마루 시공 등을 지원했다. 어르신은 "나를 위해 이렇게까지 열심히 애써주셔서 감사하며, 앞으로 다른 생각하지 않고 건강하게 잘 살겠다"라며 눈물을 글썽였다. /남원=김기두 기자



농협 순창군지부, 농·축협 건전결산 추진회의

농협중앙회 순창군지부(지부장 이병희)는 지난 12일 관내 농·축협 전·상무 등이 참석한 가운데 건전결산 대응을 위한 '2024년 상반기 순창군 농축협 건전결산 추진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관내 농축협의 수익구조 개선, 리스크 관리 강화 등 건전결산을 위한 사업별 중점추진사항과 대책을 공유했다. 또한,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3행(行)3무(無)실천'을 결의하고 금융안전사고 예방 등에 대한 교육도 실시했다. 이병희 지부장은 "올 한해도 지속적 고금리로 녹록치 않은 한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내내외적으로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맞춰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를 통해 건전결산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무주 무풍면, 김천 대덕면 등과 고향사랑 교차 기부

무주군 무풍면이 경상북도 김천시 대덕면(면장 손종일)과 경상남도 거창군 고제면(면장 이정현)과 고향사랑기부금을 교차 기부하기로 했다고 밝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세 지역은 대덕산을 중심으로 인접해 지난 1998년부터 '3도 3면 만남의 날' 행사를 통해 인적·물적 교류를 이어오고 있는 곳으로 이번 교차 기부는 지역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는 취지에서 뜻을 모았다. 무주군 무풍면에 따르면 이번 기부는 무풍면을 비롯한 김천시 대덕면, 거창군 고제면 행정복지센터 직원들 각 20명(2백만 원)이 교차 기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무주군 무풍면 김성욱 면장은 "이번 교차 기부가 3도 3면이 상호발전과 협력의 원동력이 되고 주민들의 정 또한 더욱 깊어지길 바란다"며 "무풍면은 해당 지역들과의 지속적인 교류에 앞장서는 한편, 고향사랑기부 홍보와 동참을 적극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